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장기 발전방안

† 박창호 · 강상곤*

† 인천재능대학교 교수, *(주)영진공사 기획실 차장

Long Term Development Plan of Incheon National Maritime High School

† Chang-Ho Park · Sang-Gon Kang*

† Department of Logistics, JEI University, Incheon 401-714, Korea

* * Department of Planning, YOUNGJIN Enterprise Co., LTD, Incheon 400-102, Korea

요 약 : 인천해사고등학교의 현황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한 후 이를 정리하여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인천해사고등학교, 장기 발전방안

1. 서 론

본 연구는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계의 당면 문제 중에서 기초인력양성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재학생의 학제 개편과 졸업생의 커리어패스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해사고등학교 관련 선행연구 및 법제도적 고찰을 통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존립 근거를 공고히 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다른 마이스터 고등학교들과의 차별화 및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제3장에서는 인천해사고등학교의 현재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편방향과 중장기 발전 대안을 모색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추후과제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인천해사고등학교와 같은 해양관련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등은 주로 해양수산부(과거 국토해양부) 등의 정부기관 주도의 관련 정책 수립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정부 정책에 따른 관련 계획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정부 정책 및 계획을 살펴보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 증원 추진(해양수산부, 2014),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운영(해양수산

부, 2014), 선원인력 수급 및 복지 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13), 해사고등학교 역량강화 방안(해양수산부, 2013), 부산·인천 해사고, 마이스터고로 전환(국토해양부, 2011) 등으로 주로 해양수산부 등에서 추진된 계획이 대부분이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해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정책 방안(김우호, 2010), 연안해운 선원인력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박성진 외2, 2012) 등이 있다.

그동안 선행 연구에서는 해운산업과 선원 인력 수급 및 양성 방안 등 포괄적인 대안모색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천해사고등학교에 집중하여 차별화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2 법제도적 고찰

본 연구와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선박과 그 직원에 관한 법률(선박직원법), 마리나와 항만에 관한 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수상레저와 안전에 관한 법(수상레저안전법) 및 학점인정 등과 관련된 법(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병역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3 차별화 및 발전 방향 모색

인천해사고등학교는 일반계고등학교와 달리 특수목적에 따라 관련법에 설립되어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다. 특히, 특수목적에 따라 졸업 후 취업 제일선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법제도에 의한 지원방안 수립 등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지원 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를 제시코자 한다.

† 교신저자 : 종신회원, chpark59@naver.com 032)890-7354

* 정희원, ksg7143@naver.com 032)890-1251

2.4 국내 해운인력 수급전망

해운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고객유치 경쟁이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인력수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정기선의 경우 영업전략 부문 수요가 연평균 5.5%, 부정기선의 경우 화주영업이 9.8%, 해운중개의 경우 17.5%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부정기선의 경우선박운항, 선박관리업의 종합관리 영역 증가율이 높으며 향후 각종 규제 도입에 따른 선박운항관리 영역의 인력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분야의 양성 인력이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3. 교육과정 분석 및 시사점 도출

그동안 해운에 국한한 해기사 양성에 치중되었던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침을 개선하여 해기사 양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해운항만을 비롯한 연관된 해양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복수전공이 가능하도록하고 졸업 후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커리어패스(Career Path)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인천해사고등학교의 발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해사고등학교는 1981년 선원학교로 개교한 후 1993년 특수목적 고등학교인 해사고등학교로 변경하였고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선원교육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2년부터 인천해사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 교육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인천해사고등학교의 학습 및 성장경로를 살펴보면 마이스터고(특수목적고)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를 잘 반영하지 못한 고졸 수준의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의 경로를 보이고 있다.



Fig. 1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습 및 성장경로

마이스터고 육성 정책과 관련제도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해운산업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해사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성장경로(Career Path)모형의 확립이 필요하며 졸업 후 취업한 경우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의 병행을 위한 고등교육제도 연계체계의 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사고등학교 졸업 역량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3학년 2학기 내에 개인 승선실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전용 실습선 확보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어학능력 및 실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제와 이

에 따른 개인 역량별 진로 지도체계 확립 필요하다. 특히, 채용관련 약정확대 등 선사와의 산학협력 강화교육체제를 확립하고 개인 소양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력개발프로그램(Career Develop Program)의 개발·운용을 통해 졸업생의 경력관리 및 사후관리강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 교육과정 개편 및 중장기발전 대안 모색

교육과정 개편 및 중장기발전의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이미 서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해양관련 기초인력의 양성을 공고히 함과 더불어 인천해사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제 개편과 졸업생의 커리어패스를 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이스터고인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산업수요 및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기반을 마련,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 및 직업의식, 해외취업·기술연수 등이 가능한 실무 외국어(영어) 능력, 숙련된 기술·기능을 균형 있게 함양한 인재(마이스터, 명장)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더불어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경쟁력강화 체제를 구축토록 해야 하며 인천해사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듀얼 시스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5. 결 론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수행 및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천해사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야 하며 또한 실습선 및 실습훈련장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맞춤형 교육체제의 구축과 특별교육과정 및 취업약정형 계약학과 위주로 교육체제를 정비토록 해야 한다.

특히, 취득 가능한 면허 및 자격증 체제로의 개편 또한 중요하며 방과 후 학교 개편과 일본 특화의 교육체제 구축, 인천해사고등학생의 커리어패스(직업경로) 확립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실천방안을 제안한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 내 운영위원회를 동문회와 연대하여 확대 개편하고 인천해사고등학교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상설기구가 필요하며 교과과정 개편·평생교육원 설립, 실습선·교직원 확보 등 인천해사고등학교 중장기발전을 위한 TFT(Task Force Team) 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우호(2010), 해운산업 전문인력 수급전망과 정책방안
- [2] 박성진·배후석·신용준(2012), 연안해운 선원인력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6권 .3호, pp.205~213.